

다올투자證 “선택과 집중”… 자회사 매각해 유동성 대응

다올신용정보 100% 매각 이어
인베스트먼트도 지분 전량 매각
사업 재정비해 자본 효율성 제고

다올투자증권이 자회사 매각을 통한 자산건전성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발 유동성 위기 이후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는 모양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은 핵심 자회사인 다올인베스트먼트 보유 지분 52.0% 전량을 매각할 예정이다. 예상 인수 가격은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1세대 벤처캐피탈(VC)인 다올인베스트먼트는 1981년 설립된 KTB네트워크가 전신이다. 대표적인 투자 성공 사례로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이 꼽힌다.



다올투자증권 본사 전경.

다올인베스트먼트의 매각 주관사는 삼일회계법인으로, 우리금융지주가 가장 공격적인 베팅으로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

용지주는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신년사에서 “시장 환경이 어려울수록 자회사들의 핵심사업 시장 지위를 제고해 수익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증권과 보험, VC 등 지난해 시장이 불안정해 보유한 비은행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아직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자의향서를 체결하거나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단계는 아니다. 우리금융지주 외에도 미래에셋그룹, 신영증권, 유진그룹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올투자증권이 VC 자회사를 매물로 내놓은 건 부동산 PF 자금 시장 경색 상황에서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다. 다올투자증권은 기존 KTB투자증권에서 사명 변경 후 종합 금융그룹 성장 도모했으나, 유동성 위기가 커지

자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올투자증권은 다올인베스트먼트에 이어 태국 법인의 매각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매각 대상은 태국 법인 지분 69.9%다, 앞서 지난해 말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지난 4일에는 메이슨캐피탈과 리드캐피탈매니지먼트에 다올투자증권이 보유한 다올신용정보 지분 100%를 매각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 매각금액은 130억원이다.

다올신용정보는 1999년에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로 설립된 23년 경력의 신용정보회사다. 채권관리 및 추심, 신용조사, 민원대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에 15개 사업장을 운영하며 전국적인 영업 네트워크를 갖췄고, 예보채권 및 캠퍼채권 회수실적이 업계 1위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그룹 사업 구조 재편에 따라 일부 계열사를 매각

하게 됐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그룹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향후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근 다올투자증권 대표이사도 신년사를 통해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창근 대표는 “지난해 상반기 사상 최대이익을 기록한 것이 무색하게 하반기에는 자금시장 불안으로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이하게 됐고, 이로 인해 우리는 제 살을 깎아 내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해야만 했다”라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회복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기존 사업을 재정비하고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바닥 찍었나… 네이버·카카오 반등, 주가 전망은 ‘글썄’

기술주 투심 회복되면서 상승세
기관·외국인 네이버·카카오 매수
상승 제한 vs 지속 상승 전망 갈려

지난해 경기침체 우려로 약세가 이어졌던 기술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올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향후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는 전장 대비 1200원(1.98%) 오른 6만 1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5만 3100원에 마감한 지난해 연말 종가 대비 16.57% 오른 수치다. 네이버 역시 이날에만 2000원(1.04%) 올랐으며, 작년 말 보다는 9.86% 높아졌다.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기관투자자의 경우 올 들어 지난 10일까지 카카오와 네이버를 각각 1726억원, 781

NAVER
kakao

억원을 순매수하면서 순매수 상위 종목 2위와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기관투자자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서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페이 11위(475억원), 카카오뱅크 14위(344억원) 등도 순위권에 들었다.

외국인 투자자는 같은 기간 네이버를 742억원 어치를 사모으면서 순매수 순위 7위에 올랐다. 다만 카카오의 순매수 금액은 296억원으로 16위에 그쳤지만, 카카오뱅크 주식을 665억원 어치 사들이면서 8위에 오르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기술주 대부분은 중앙은행 긴축 정책 속에서 큰 하락을 겪은 바 있다. 카카오와

네이버만 하더라도 지난해 종가가 연초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개인투자자가 지난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2, 3위에 이름을 올렸지만 네이버는 37만8500원에서 17만 7500원, 카카오는 11만2500원에서 5만3100원으로 주가가 각각 53%, 52% 추락한 바 있다.

그러나 올 들어 미국의 임금상승세 둔화, 실업률 감소 등으로 향후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10일(현지시간) 뉴욕 증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하루에만 1.01% 오르면서 마감하기도 했다.

다만 향후 두 종목에 대해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증권가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네이버에 대해 광고 매출 성장률 부진을 예상하면서 주가 상승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 예측보다

광고 매출 성장률이 부진하다”라며 “경기침체로 인해 주요 광고주들의 광고 예산이 크게 축소됐고, 이태원 참사 또한 4분기 광고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광고 및 커머스 시장 성장률 둔화를 반영해 주가수익비율(PER)를 기존 14배에서 12배로 낮췄으며, 목표주가를 3만원 낮춘 27만원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중국 내 플랫폼 기업 규제 완화로 업계 가치가 올라 국내 플랫폼 기업의 주가 상승 가능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메리츠증권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목표주가를 23만원, 7만2000원으로 상향했다. 이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플랫폼 기업 규제 완화로 업종 밸류에이션 바닥권에 위치한 중국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가팔랐다”며 “규제 완화에 따른 국내 업체의 직·간접적 수혜에 따른 주가 상승은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석 기자 ysl@



구미 ‘형곡 3주공 재건축’ 금호건설, 단독 수주 따내

금호건설이 올해 첫수주를 재건축사업으로 따내면서 정비사업 분야에서 첫출발을 내딛었다.

금호건설은 경북 구미시 ‘형곡3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계약을 조합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형곡3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경북 구미시 형곡동의 ‘3주공 단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 금액은 약 1838억원으로 금호건설이 단독으로 시공한다.

정비사업 분야서 올 마수걸이
1838억 규모… 2026년 준공

작년 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 건수 32% ↓ 채권전문가들 “금통위 베이비시텟 전망”

총 4810건… 주식시장 부진 영향
행사금액은 2.9조… 30.6% 줄어

지난해 주식시장 부진으로 주식관련 사채 권리 행사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건수는 4810건으로 전년 대비 31.9% 감소했다. 권리행사 금액은 2조8967억원으로 전년 대비 30.6% 줄었다.

주식관련사채는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발행 시 정해진 일정한 조건(행사가액, 행사기간 등)으로 발행사 또는 타 회사 주식으로 전환이나 교환이 가능한 채권

을 뜻한다.

종류별 권리행사 건수는 CB, EB, BW가 각각 2627건, 124건, 2059건으로 2021년 대비 42.1%, 55.4%, 8.5% 감소했다.

종류별 권리행사 금액은 CB가 2조 1253억원으로 전년 대비 33.4% 감소, EB가 1502억원으로 전년 대비 42.7% 감소, BW가 6212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 줄었다.

지난해 주식관련사채 행사금액 상위 3개 종목은 두산중공업 1회 WR(3840억원), 대한항공 92회 CB(3000억원), 두산에너지 2회 WR(60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원관희 기자 wkh@

국내 채권전문가 67%가 오는 13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베이비시텟(0.25%p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185개 기관, 800명)를 설문 조사해 ‘2023년 1월 채권시장지표(BMSI)’를 산출한 결과 종합지표가 한 달 전보다 14.8포인트(p) 하락한 84.2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설문 문항에 대한 답변 인원의 응답으로 산출되는 BMSI는 100 이상이면 시장이 호전, 100이면 보통, 100 이하면 악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다.

부문별로는 금리전망 BMSI가 86.0

으로 전월(88.0) 대비 소폭 악화됐다. 응답자의 40%가 금리상승에 응답해 전월(38%) 대비 2%p 상승했고, 금리보합 응답자 비율은 34%로 전월(36%) 대비 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투협은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요 국 금리인상 사이클의 예상 종료시점이 늦춰지면서 2월 금리상승 응답자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물가BMSI는 95로 물가 관련 채권시장 심리는 전월(110) 대비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18%가 물가상승에 응답해 전월(10%) 대비 8%p 상승했고, 물가보합 응답자 비율은 69%로 전월(70%) 대비 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경 기자

/김대환 기자 kdh@